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래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종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판노)자과 코럼비아 자과대학교 졸업 엘리트메디칼(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Juli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5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광고모집

제1677호

2011,8,28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태오 16, 21 - 27)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2주일

ㄹ 입당송

(시편 86(85),3,5)

주님,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나이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치욕 거리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7-9)

주님, 당신께서 저를 피시어 저는 그 꾀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나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8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뺨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63(62),2,3-4,5-6,8-9(● 2ㄷ))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1.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2.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3.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4.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ㄹ 제2독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2,1-2)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ㄹ 복 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1-27)

그때에 2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맴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영성제송

(시편 31(30),20)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8/21 8시	김 철	윤 광석	윤 기애	정 태영
11시	민 경구	송 호진	송 교식	이 영자
8/28 8시	이 상자	김 부균	방 경숙	박 미순
11시	이 창섭	양 명상	양 정남	이 종숙

복사 : 박지성 & 조중형 이다운 & 김현진

봉헌자 : 로첼진&민중기 가족 다음주 : 윤구식&김윤환 가족

헌금봉사 : 바다의 별 Pr 다음주 : 상지의 옥좌 Pr

운전봉사 : 민 경구 다음주 : 조 영미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윤마리아 음악회에 도움주신분들(감사미사) : 김재찬 가족봉헌

신베드로[용길], 신바오로[재욱](감사미사) : 신예레미아[홍원] 봉헌

최카타리나[연월](생미사) : 정제업스[우충]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임유리안나[창희](연미사) : 문아네스[옥희], 박다니엘, 박아네스

김패트릭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김마리아[명수](연미사) : 손세실리아, 손아브라함[달구] 봉헌

부모님(연미사) : 김마테오[창규] 봉헌

조상님(연미사) : 김선주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가족, 이줄리아[영숙]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봉헌

성가

입당 : 주계선 나의 피신처 (성가 59)

봉헌 : 형제에게 베푸는 것 (성가 41)

성체 :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가 145)

파견 : 주 예수 따르기로 (성가 29)

교회 소식



(1) 새 회계연도 시작

오늘이 8월 마지막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구역회와 단체모임을 갖도록 합시다

(2) 주일학교 한글학교 개학

주일, 한글학교가 9월11일(둘째주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3) 꾸르실료 소식

여성 제2차 영어 꾸르실료(9월15일(목)-18일(주일) 피정과
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10월20일(목)-23일(주일)) 뉴튼 분도
수도원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간사 정우충(제임스)
(917) 325-0779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M.E. (행복한 주말부부)

제66차 부부주말 피정이 9월3일(토)-5일(월)에 Wyndham Garden
Hotel, Newark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대표부부
장 윤화(알폰소) 914-523-9887 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성령세미나 소식

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10월27일(목)-30일(주일) 까지 마ریان 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장 최일환(니콜라오)
(347) 573-1417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6) “바보 추기경” 연극소식

9월17일(토) 오후8시 18일(주일) 오후3시, 오후8시에 뉴저지 페리시안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입장권은 특석\$60 일반석\$30입니다.
문의전화는 (846) 947-1504 / (201) 669-9898 로 하시기 바랍니다.

(7) 부주임신부님 휴가

부주임신부님께서 다음주 29(월)-9월9일(금) 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 본당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연령회** 모임이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12시30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달(8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다음달(9월)은 **중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막 상식

◆ 관면혼인(혼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 신자포함) 사이의 결혼시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을 말하는데, 신자측은 ①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과 ②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것과, 비신자측은 ①신앙을 가진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 않을 것과 ②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도 먼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상 결혼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교회법상의 절차없이 결혼하게 되면 천주교 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리게 된다.

◆ 꾸르실료 (Cursillo)

'단기 강습회'란 뜻의 스페인어로 1949년,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위해서 스페인에서 시작된 신앙쇄신운동으로서 3박4일의 교육과정 동안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크리스찬 생활의 쇄신을 위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 ★ **꾸르실리스마** - 이 과정을 수료한 형제자매들
- ★ **울뜨레야** - 팀의 집합체
- ★ **팔랑까** - '지렛대'라는 뜻으로 꾸르실료 교육의 성공을 위한 영적 또는 물질 선물이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871.36

교육헌금 : \$ 1,910.49

교회사용료 : \$300.00(김재찬 가족)

교무금 : \$ 1990.00

김문자(8) 전영자(7.8) 이수학(4-6) 이현규(5-9)

박세복(8) 박경룡(완남) 신대철(8) 이동수(6-8)

김민환(5-8) 강순연(8)

Stewardship Appeal : \$150.00 누계 : \$ 8,725.00

김광춘 김민환 정우충

8월을 보내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있는것이 윤기가 없다. 이제 여름도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쓸쓸 해 진다. 하긴, 어느새 8월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있으니...9월, 가을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불안해진다. 한해도 다 갔다는 허무함, 곧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그렇지만 이제 다시 수확의 계절, 화려한 단풍을 볼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한다. 9월은 참 좋은 계절이면서 한편 무척 바쁜 달이다. 높고, 푸른 하늘, 춤지도, 덥지도 않은 맑은 계절, 그리고 아이들이 한 학년씩 진급을 해서, 또는 대학이나,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해서 등교를 하는 달 이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심지어 오락프로그램까지도 새로 시작하는 달이다. 나의 손자는 금년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9월부터 초등학교를 시작한다.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학교 갈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쇼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에서 자기가 무슨 왕자처럼 자라온 아이가 한반에 20여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 틈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아이 엄마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그래도 아이가 이제부터는 엄연한 학생이 된다는데 대해 여간 대견하지가 않다. 그리고 보니 이제 축 늘어졌던 여름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절이 돌아온다고 해도 되겠다. 한편 여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금년 여름에는 곳곳에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산이 무너져 내리고, 가옥이 침수되고, 논밭이 물에 잠겼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당한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안됐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여름을 편히 지냈다는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언젠가 한 잡지에서 읽은 말이 생각난다. 7월은 별일 없이 어정거리다 지나가서 7월을 어정칠월이라고 한다더니 정말로 덥다는 평계로 그렇게 어정거리다가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8월을 시골에서는 가을걷이에 바빠서 건들바람처럼 덧없이 휙 지나간다고 해서 건들 8월이라고 한다던데 도시에서는 여름이 지나간다는 아쉬움으로 그렇게 휙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9월은 어떤 달일까? 아마도 뉴욕에서의 9월은 시작의 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한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9월을 맞이해야 되겠다.

우 몽은